

미래전략포럼
'25.5.28.(수) 14:00

개 회 사

2025. 5. 28.

증장기전략위원장
박 재 완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한국 바이오 산업의 가능성과 도약 과제」를 논의하는
미래전략포럼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뜻깊은 자리를 준비하신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
그리고 바이오산업의 미래를 고민하시는 전문가분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K-바이오의 기술력과 생산 역량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우리 바이오 기업들은
백신, 바이오 시뮬러, 유전자 치료제 등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둬,
세계 무대에서 입지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84년 「생명공학육성법」 제정을 시작으로
바이오산업의 토대를 다져 왔습니다.

「생명공학 육성 기본계획(’93.12월)」,
「Global Bio-Korea Vision 2010(’02.6월)」 등
바이오산업 지원방안을 수립하여
정책 지원과 R&D 투자를 병행해 왔습니다.

특히 2009년, 정부는 바이오헬스 산업을
17대 신성장 동력 산업의 하나로 지정해,
중장기 전략 수립, 기반 구축과 예산 확대에 힘써왔습니다.

최근 세계 바이오산업은 격변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제 바이오산업은 단순히 유망산업을 넘어,
경제안보의 중추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AI 기반 신약, 세포·유전자 치료제 개발 등
첨단 기술이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는 가운데,
각국이 뛰어든 글로벌 주도권 경쟁도 치열합니다.

스위스, 독일, 미국 등 바이오 강국들은
연구개발부터 상용화까지 전고한 생태계를 구축해
국부의 상당 부분을 바이오산업에서 창출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정책의 정합성을 드높이고,
민관 협력을 체계적으로 가다듬어야 하겠습니다.

기초연구부터 사업화 지원, 규제 개선, 시장 확대까지
각 단계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한편,
민간의 창의와 속도를 정책적으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글로벌 파트너십의 전략적인 접근도 필요합니다.

우리의 잠재력은 충분합니다.
탄탄한 의료 인프라와 디지털 역량,
가파른 성장세의 바이오 스타트업 생태계,
우수한 과학기술 인재 풀 등 토양은 비옥한 편입니다.

갓 유년기를 지난 우리 바이오산업이
이제 본격 도약을 위한 험난한 여정에 돌입합니다.

비록 후발주자이지만,

“나중에 나온 뿔이 더 우뚝하다(後生角高)”
라는 고사가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오늘 포럼이 그 나침반과 디딤돌이 되어,
또 하나의 무성한 담론에 그치지 않고,
미래를 이끄는 변곡점으로 승화하기를 기대합니다.

대한민국과 여러분의 앞날에
항상 신의 가호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